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강의 6 장르와 공관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6, 장르와 공관복음을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수업 시간을 마쳤습니다. 월요일인가 그런 식이었죠.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지만, 월요일에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문학적 유형이나 형식, 문학 장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내러티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은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학이지만요. 그것들은 내러티브, 특정 인물의 묘사, 그들의 연설 및 특정 사건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구성하는 두 가지 다른 지배적인 문학적 형식, 즉 문학적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문학적 형식 및 유형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학적 형식과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세기에 저자들이 글을 쓴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학 형식을 활용했으며 그것은 우리가 특정 구약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러티브 장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편지나 서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 문학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월요일까지는 특정 복음서나 책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소개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신약성서의 문학적 유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외에 아무것도 연구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언어적 맥락에서 생산된 신약성경 본문에 대해 더 큰 감사, 인식 및 이해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기 위한 준비로 내러티브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라 배열되거나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쓰여졌다. 적어도 마태복음과 아마도 누가복음은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약성경은 좀 더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는 서사적 장르에 맞는 일련의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1세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고 어떻게 이해되었을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 이야기나 전기에서 복음서는 대부분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의 범주에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복음서와 현대 전기의 차이점은 1세기 전기, 특히 복음서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삶과 그들이 말한 모든 것. 그러나 복음서는 훨씬 더 선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복음서는 실제로 특정한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묻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왜 사복음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하나의 장대하고 역사적인

설명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신에 교회는 네 가지 다른 복음서를 스탠드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신학적 요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복음 이야기의 변형 및 예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는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포함할 내용과 기록 방법을 매우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볼 질문 중 하나는 왜 마태와 누가만이 소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는데 마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맨 처음에 나오는 아주 짧은 문장이나 구절에서 그 사실을 포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 그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매우 다릅니다.

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매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약 1년 정도 후에 이 동방 박사들, 즉 외국 점성가들이 와서 예수를 방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1세기의 이야기나 1세기의 전기, 특히 복음서에 요약되어 있는 것인데,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선택적이었습니다. 전달하려는 신학적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저자는 기록하는 사건과 기록 방법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몇 가지 짧은 구절을 제외하고는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세요.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점은 1세기 누군가가 연설에서 말한 내용을 기록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요약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인용문으로 묶고 누군가가 말한 모든 것을 단어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1세기

작가들은 작가가 말한 정확한 동사나 단어보다는 누군가가 말한 내용의 의미와 요점을 요약하고 목소리를 포착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시고 복음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 다른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앉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현대 번역본으로 읽으신다면 아마도 대략 1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천천히, 혹은 명상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끝까지 읽어 보세요. 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10분 동안 말씀하셨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예수께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신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는 저자가 정확한 표현을 포함하거나 그 표현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우리 복음서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마도 예수의 연설 대부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요약, 즉 정확하고 적절한 요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Gordon에서 교수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은 대략 2~3페이지 분량인데 회의는 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와 약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회의록에 요약하는 비서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한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한, 시간은 흐르고 누구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내용과 약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전달하신 내용과 그가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정확하고 적절한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르는 서간체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서신은 오늘날 우리가 서신을 쓸 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서신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철학적 논문과 그 사이의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사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실제로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에는 편지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일도 꽤 잘 잡혀있었어요. 즉, 이 책은 1세기 작가가 따랐던 상당히 일반적인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매우 일반적인 1세기 형식과 쓰기 방식을 따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1세기에 쓰여진 편지 중 상당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바울의 편지에서 1세기 편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비록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편지의 형태로 무엇이든 소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1세기 편지보다 적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편지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것, 첫째, 편지는 종종 화자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때 편지를 쓰면 편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은 종종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대체했으며, 그는 독자들이 바울이 직접 편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그 편지들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는 화자의 존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종류의 편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기에 다양한 유형의 편지가 있었고, 바울이 쓴 1세기의 매우 일반적인 유형과 유사한 두 개의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지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면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편지는 아주 흔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나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1세기 그리스-로마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표준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런 서신적 장르는 아마도 히브리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베드로전후서와 요한서신, 유다서에도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요한 계시록도 실제로는 서신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한 권의 책, 즉 요한계시록으로만 구성된 마지막 문학 유형은 묵시록입니다.

이 책의 문학적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자주 다루어지고 때로는 남용되는 방식을 피하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학기 말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기록되었으며, 저자가 이를 받아들여 1세기에 편지와 함께 매우 일반적인 문학적 형식으로 기록되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말. 기본적으로 묵시록은 환상적 경험에 대한 1인칭 자서전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요한은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은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후 약 200년 동안 기록된 묵시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종말의 숫자에 대한 영어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 방향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요점은 요한계시록이 독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 독자들을 위해 그것을 기록하는 아주 일반적인 글쓰기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환상적인 경험에 대한 1인칭 설명이며 일반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전달됩니다. 이상한 짐승이나 이미지 등의 상징으로 전달되는데, 이 이미지의 작가가 어디에 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1세기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을까요? 21세기의 우리에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도달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신약성서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종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수많은 것이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처음 읽어주는 것을 들었을 때 친숙했을 꽤 흔한 문학적 유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문학적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약간의 맛입니다. 이 문학에도 다양한 종류의 문학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유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 다시 말하지만, 비유는 1세기에 매우 일반적인 문학적 형태나 가르치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과 내용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그 형태는 1세기의 청중과 독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인식할 수 있었던 형태를 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책을 접할 때, 우리는 문학 장르나 문학 유형이 우리가 이 책에 접근하는 방식과 읽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정 본문 자체를 검토하기 전에 복음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그것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몇 가지 관찰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좀 더 허구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교회가 날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믿을 수 있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당신은 아마도 CS Lewis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CS Lewis의 잘 알려진 트릴레마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몇 년 전 Great Conversation 수업이 있기 전에 기독교, 인성,

문화로 알려진 일종의 신입생 세미나 유형 수업에 사용했던 책에서 이것을 주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읽은 책 중 첫 번째는 CS Lewis의 단순한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도 그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가 루이스의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주장을 읽을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주님이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것이거나 아마도 정신이 나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가 말하는 것은 전혀 현실에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는 자신이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루이스는 후자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루이스가 네 번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서가 전설인지 여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장한 대로 주님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허구의 전설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루이스의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주님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였는가? 사실 매우 대중적인 방법은 얼마 전 Dan Brown의 The Da Vinci Code와 같은 책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브라운이 말한 것은 학계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일의 대중화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즉 복음서를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이야기나 예수에 대한 역사적 설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좀 더 전설적이거나 허구적인 유형의 장르를 따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서는 브라운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초대 교회의 신학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든 것은 초대교회의 신학과 사교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역사적 핵심인 모든 껍질을 벗겨낸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1세기에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며 좋은 것을 가르치다가 마침내 자신이 믿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뿐입니다. .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이 작은 알갱이가 교회의 신앙에 기초하여 덧씌워져 있고 일종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그가 누구라고 믿었는지, 교회가 그가 누구인지 가르쳤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대신, 그것은 다시 일종의 교회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어내면, 당신이 가진 것은 단지 1세기에 좋은 것을 가르쳤고 그가 믿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복음서가 교회의 신앙과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더 많이 반영하는가, 아니면 복음서가 실제로 예수가 가르친 내용과 그가 실제로 누구였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즉, 우리는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였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아니면 복음서는 단순히 교회의 신학, 신앙,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노트에 있는 교회 역사를 재구성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교회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믿었는지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예수의 초상화는 종종 교회사가 이렇게 보이도록 재개념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첫 3~4세기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는 Bart Ehrman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 그의 작품 중 하나인 *Lost Christianities*, 복수형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세기에 기독교가 매우 다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지배적인 견해는 하나도 없었으며, 그것이 마침내 나타난 것은 나중에야 가능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난 후, 가장 강력한 승자들이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독교의 한 요소와 그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반영일 뿐이지만, 이 견해에 따르면 이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확실히 지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선, 내 노트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평가하자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가 다양한 관점을 용인하고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문서를 읽고 그들이 거짓이나 오류가 아닌 진리를 보존하는 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실제로 많은 신약성경 문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나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대한 반응으로 기록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주 초기에 다양한 의견을 용인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신약성경 문서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견해에 반대되는 참된 것에 대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관점은 역사와 신학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과 함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작가가 신학을 썼다면 역사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불법적인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학을 썼다고 해서, 그들이 전달하려는 특정한 관점과 이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성급하고 느슨하게 다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신학을 썼다고 해서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단지 역사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학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역사를 잘못 이해했거나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한 설명에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신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세기에 목격 증인들의 존재와 신뢰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복음서 작가인 누가는 자신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 의지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쓸 때 의지했던 목격자들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존재와 다른 지표들은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의 삶과 죽음, 가르침에 대해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교회가 믿었던 것만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날조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CS 루이스의 트릴레마 이전에 예수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전설이 될 수 있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대신 우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내가 말했듯이 전통과 가르침과 저술을 견제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는 목격자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의 존재로 인해 1세기, 특히 복음서에서 단순한 날조가 사실인 것처럼 전달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때때로 이 예를 사용하고 내년엔 덴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나의 동료가 될 Craig Blomberg로부터 이 예를 빌립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는 당신의 노트에서 그의 책을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언급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 전설적인 자료의 부정확성 등이 들어왔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유는 전화 대화 게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Gordon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당신의 귀에 속삭이고 당신이 그것을 전달한다면, 그때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뒷부분으로 올라갈 즈음에는 대개 내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내가 말한 것보다도 가깝지 않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복음서에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자료는 대부분 구두로 전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일부는 기록 되었을 것이고 복음서 작가들은 일부 기록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구두로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달되는 고도로 전자적이고 기술적인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많은 정보가 구두로 전해졌을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도 많이 보존되어 구두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입으로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화에 비유합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속삭일 때 당신이 방 끝에 도달할 때 그것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전달되면서 그것은 추가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오해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침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도달할 때 그들이 쓴 내용은 분명히 장식되고 추가될 것이며 실제 내용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일어난.

다시 말하지만, Craig Blomberg는 그 비유의 유일한 문제는 목격자가 있고 아마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서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비유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비유는 내가 말한 일곱 번째 사람이 이제 일어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저는 그것을 정정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시작하고 7번을 더 진행한 다음 그 사람에게 일어서서 당신이 들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면 최종 제품이 대부분 정확하고 내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의 존재는 아마도 전통이 단순히 무자비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정확한 묘사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사이의 일치는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불일치, 소위 불일치 또는 차이점을 빠르게 지적하는 반면,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이의 유사점과 일치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재료의 전승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전통을 지향합니다. 많은 정보가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자체의 본질을 깨닫고 인정할 때, 다시 복음서가 단어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고려할 때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전기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 1세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록 표준에 비추어 측정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그렇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 번 페이지 하단에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관한 가장 유용한 책 중 하나인 크레이그 블롬버그(Craig Blomberg)가 쓴 여러 구절을 검토하고 있는 책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그는 명백히 모순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의 구절을 찾아내고, 복음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을 단순한 조작이나 교회가 생각한 것의 단지 반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실, 역사적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교회 신앙의 반영일 뿐이지만, 그것이 크레이그 블롬버그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입니다.

불행하게도 최초 출판 날짜는 1987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정되었으므로 개정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아직 내 메모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Blomberg의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분명 그럴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대답한다면 실제로 내가 말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나는 다른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뒤에는 복음서 중 하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자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인간성을 제거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1:1-4을 읽어보세요. 누가는 1세기에 참고문헌을 편찬하는 매우 인간적인 과정을 겪었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셔서 최종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특히 읽을 때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가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이야기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이 왜 다른 세 복음서와 그렇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질문은 처음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그렇게 비슷합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이 신약성서 읽기를 따라잡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음을 의미하며, 읽으면서 기시감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즉, 당신이 Luke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자료를 이미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전달하는 내용과 순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단어, 복음서의 표현 방식, 방식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겹치기 때문에 때때로 거의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진 것, 즉 학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이것을 선택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공관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공관복음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볼 때, 즉 공관적으로, 함께 볼 때,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볼 때, 이 세 복음서가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지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의 여러 부분의 정확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자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의 특정 사건이나 특정 말씀을 언급할 때 표현은 거의 동일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당신에게서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과 비슷한 세

개의 연구 논문을 받았다면 아마도 당신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협력이 아닐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예수님의 변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중간쯤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변화되거나 변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세 복음서 모두에서 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이제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인용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인용문이 유사하다면 이는 단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한 마디 한 마디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것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변형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의 서술적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옛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흥미 롭군요. 어떤 번역을 따르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어 본문도 어떻게 보일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점은 이것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이야기적 논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루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중 일부에 대해 조금 기분이 나빠지면 죄송합니다. 이제 약 8일 후 누가는 8일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8일을 언급하는 순서,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언급하는 순서가 대략 같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비록 그가 야고보와 요한을 바꾸긴 했지만, 그가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기도하러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매우 흔한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Luke가 그것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구절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구절에서 발견한 언어적 유사성의 정도를 가진 세 개의 논문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과 아마도 학장과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SafeAssign에 제출하도록 하면 이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 세 구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관 문제라고 알려진 문제입니다. 사건의 순서뿐 아니라 표현, 심지어 표현 자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유사성을 드러내는 세 문서인 마태, 마가, 누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노트북에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실제로 서로 독립적이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한 지식 없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성령의 영감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유사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의 문제는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피곤하셔서 누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중 일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문서들에 영감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된 구전 전통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 자료가 마침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으로 기록될 때까지 구두로 전달되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전해졌던 동일한 구전 전통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점을 설명해 줍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약성서 학생들과 학자들은 일종의 문학적 의존성이나 관계를 선호합니다.

즉, 복음서 중 하나가 먼저 기록되고 다른 두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활용하거나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 이상의 복음서가 하나 이상의 다른 복음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이에는 일종의 복사나 차용,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현의 유사성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술적이다. 이것은 어떤 연설의 인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자 자신의 서술적 논평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문학적으로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성자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작성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당신 노트의 두 번째 요점인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신약성서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두 번째로 기록되었으며 마태복음을 자신의 자료 중 하나로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실제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가 직접 쓴 최초의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와서 마태복음을 그의 자료 중 하나, 일종의 기초로 삼아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 번째 글을 썼고, 글을 쓸 때 마태와 마가를 주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아마도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서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이며 마태와 누가는 모두 마가복음을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스스로 썼고,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었고, 마태와 누가는 둘 다 마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은 마가를 자신들의 복음을 쓰기 위한 일종의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서로 독립적으로 마가복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아마도 서로가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글을 쓰고 있었지만 둘 다 Mark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차트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Mark가 먼저 썼다 아래에 있는 노트에서 두 번째 항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크가 있습니다. 이는 이 차트가 복음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따로, 독립적으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크를 빌리겠습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2세기 초 교회의 한 유명한 작가는 실제로 마가를 가까운 동료이자 베드로의 해석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산에 올라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탁월함을 고려하면, 만약 마가가 베드로의 해석자이자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이고, 1세기 베드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것은 마태와 누가가 그의 복음을 일종의 복음서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초.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발견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누가와 마태는 모두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표현이 매우, 매우, 매우 가깝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다른 곳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매우 유사한 자료가 있는 다른 곳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글썄, 학자들은 Q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Q라는 단어는 단순히 독일어 단어 소스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쓰여졌는지, 구두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나는 알아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Q를 생산한 커뮤니티와 Q

커뮤니티가 믿는 바를 생각해내기까지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추측 위에 추측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Q가 산상수훈과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탄생 이야기,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발견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학자들은 이를 지정하기 위해 Q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마가가 아마도 베드로의 가까운 동료로서 베드로의 가르침과 설교를 반영하여 처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마태와 누가는 자신의 복음을 구성하는 데 마가를 주요 출처로 사용했을 것이며, 마태와 누가는 아마도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Q라고 부르는 다른 문서나 정보 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산상수훈과 비슷하지만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의 목적은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왜 그토록 비슷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제 마가복음을 첫 번째 복음으로 보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마태와 누가는 종종 마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까? 특히 마가가 조금 어색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마태와 누가가 그를 부드럽게 설명하기 위해 부드럽게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암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내 말은, 누군가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응, 예수는 좋지 않아.

왜 나를 좋다고 부르나요? 난 아니다. 이것은 마크가 의미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묻느냐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시 한 번 잠재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가 그렇게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마태와 마가가 마가를 압축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압축하거나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말을 빌리고 있다면 그들이 일을 압축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 거칠게 만들거나, 잠재적으로 오해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또 다른 이유는 마가복음의 대부분이 마태와 누가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90%, 97%가 마태복음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90퍼센트, 88퍼센트가 누가복음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다른 자료도 포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마태, 마가, 누가가 평행할 때, 세 사람을 모두 볼 때, 즉 마태, 마가, 누가와 그들의 가르침을 비교할 때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태와 마가는 누가의 글을 읽고 누가와 마가는 마태의 글을 읽습니다. 이것은 단지 복잡한 표현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게서 차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은 결코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식으로든 마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복음서를 비교할 때 마태와 누가의 같은 방식으로 마가에서 출발하는 것을 거의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태와 누가의 마가를 활용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의 비교할 때 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각 복음서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인 마태와 누가의 비교해 보면 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마태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즉 소위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목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시 한 번 여기의 예로 돌아가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 누가의 날은 왜 6일이 아니라 8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언급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하고 이야기하는 세 편의 글이 있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할 때 각 복음서의 두드러지고 강조되는 신학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렇지 않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복음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의 통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복음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특정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구성하는 방식, 특정 사항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강조하는 독특한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 등

저는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6, 장르와 공관복음을 발표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